

고금리 대출장사로 배불린 '저축은행'

〈예금금리 5배〉

지난해 79곳 2조4992억 순익...1년새 24% 늘어

광주·전남 예대마진 9.78%...전년비 2.57%p 올라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의 5배를 훌쩍 넘는 고금리로 대출장사를 하면서 이자마진을 훌쩍하게 쟁겼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스마트·다불 등 지역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이자 순이익(잠정치)은 2조4992억원으로 전년(2조150억원)보다 24% 증가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 순이익은 저축은행이 대출 후 거둬들이는 이자 등 이자수익에서 예금 수인과 채권 발행 등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을 뺀 마진이다.

저축은행의 이자 순이익은 2011년 3조원에 육박했지만, 저축은행 부실 사건으로 고객이 줄면서 2012년 2조894억원으로

감소했고 2013년 2조472억원, 2014년 2조15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광주·전남 지역 저축은행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대폭 커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9.78%를 기록, 2년 전(7.21%)과 비교해 2.57%p포인트나 커졌다.

이처럼 평균 대출 금리가 올라간 것은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은 1~3등급의 고신용자를, 신협이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4~5등급의 중상위 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주로 해주고, 저축은행은 이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저신용 등급의 고객에게 주로 대출을 해준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신용 대출이 가장 많은 SBI저축은행은 전체 가계 신용 대출에서 연 27.9%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75%로 절반 정도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 금리를 종전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대출이 두 번째로 많은 HK저축은행도 27.9%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63.66%였다. 이 밖에 OK저축은행(49.33%)과 웰컴저축은행(61.43%), 진에 저축은행(49.77%)로 고금리 대출비중이 절반을 넘거나 육박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해 주는 고객층을 보면 90% 이상은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라며 "이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다 보니 평균 대출금리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이자 순이익 증대와 관련 저축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저축은행측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 손실이 많이 나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9.3%로 2년 전(20.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저축은행이 서민의 예금을 받으면서 대출금리는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로 책정하고 있어 대부업과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로 최고금리를 차등화해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2.14 (+7.23)	금리 (국고채 3년) 1.45% (0.00)
↑ 코스닥 691.13 (+4.63)	↓ 환율 (USD) 1150.80원 (-13.00)



지역 건설업 내실화·성장동력 확보

건설협전남도회 정기총회... 대학생 12명에 장학금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김영구)가 3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내실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목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중점 추진 방안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 ▲건설업 인력양성 육성 및 건설생산체계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회원사 고충처리 및 경영애로 해소 ▲불합리한 중복 및 과잉규제 개선 ▲기술중심 임찰제도 확립 및 실질적 시공능력 강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 및 나눔경영 확대 ▲회원소통강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등을 잡았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과 관련해 도내 발주 대형공사에 지역업체들이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심사제에 대해서도 낙찰률 상승뿐 아니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제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은 "올해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건설업계가 공동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간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12명에 대한 장학금(총 1200만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ISA, 출시 보름만에 가입자 100만 돌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불완전판매 불안 여전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기대를 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보름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전체 ISA 가입자 수는 전날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당국 공식 통계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ISA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각각 92만6103명, 5192억원이다. 이후 영업일인 28~29일 이틀간 10만 명가량이 추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비교대상 상품인 재테크저축의 인기에

는 미치지 못했지만 시판 보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자 금융권에서는 ISA가 초기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과당 판매경쟁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완전 판매가 문제로 거론된다. 일부 은행들은 직원별로 유지목표 계좌를 100~200개로 정하고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런 탓에 잔고 1만원 이하인 강통 수준의 계좌가 적지 않게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산구 새싹아동센터' 光銀 희망공부방 선정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새싹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2호점 선정식<사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2호점으로 선정된 새싹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광주은행은 노동조합과 함께 임직원 성금과 은행 기부금의 매칭 그랜트를 통해 대문과 현관을 교체했고, 공부방에 필요한 책장과 책상, 의자 등을 선물해 아이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광주은행 노동조합 임원 및 부위원

장과 지역사회봉사사단들은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학습도서 50권을 선물하고 새롭게 꾸민 공부방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은행 김한진 부행장은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들의 학습 장소이자 쉼터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광주은행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의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및 환경이 열악한 아동보육시설의 학습환경을 개선해 주고 공부방을 만들어줌으로써 소외계층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공헌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모차 전용 주차장·키즈라운지 운영

롯데백화점광주점 임산부 배려 캠페인 호평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다양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과 대리주차, 키즈라운지 운영 등 임산부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 고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신 주차해주는 '발렛파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화점 지하 3층에 기존 주차 공간보다 1.5배 큰 유모차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또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들의 층간 이동을 돕기 위해 유모차 우선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 유모차 대여소 등에는 100여대의 유모차와 오가닉 합색을 비치해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전용 수면실과 모유전용 수유실, 가죽 화장실, DVD 놀이방 등 키즈라운지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롯데문화센터에서도 매 화기마다 영·유아 강좌와 패밀리 강좌, 문화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어음 부도율 확 줄었다

2월 0.11% 전월비 0.15%p 줄어...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전월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 어음부도율(전국결제본 제외)이 0.11%로 전월 0.26%에 비해 0.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0.15%, 지방 평균 0.3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은 0.56%에서 0.18%로, 전남지역은 0.09%

에서 0.08%로 각각 0.38%p, 0.01%p 떨어졌다.

광주·전남지역의 부도금액은 37억원으로 전월(70.6억원)에 비해 33억5000만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9억5000만원 감소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4000만원, 5억10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5억6000만원 감소한 반면 전남은 2억원 늘었다. 2월 중 신규 부도업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광복기자 kroh@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질감시공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무료 견적서도 카탈로그도 다량하고 저렴한 가격에 견적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불리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세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샐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시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스틸단열방수 전문기업 **연합건설** 1599-7652

광주·전남지사 NAVER **연합건설** 검색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